

# 세대간 자산이전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 A Study on Changes in Cost of Housing at Marriage by Age Group in Term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주거환경학과  
부 교수 이소영\*\*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So Young

### <Abstract>

Unequal distribution of shares among children dur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ence of assets has been prevalent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whether parental contribution, in the form of a cash gift, is differentiated between the bride's side and the bridegroom's side at marriage and by age group. This pattern may also change according to the generation. Questionnaires were equally distributed to members of three previously delineated age groups: 20's-30's, 40's -50's, and 60's and above who are married or have been married at least once and reside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A total of 7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the data were sorted by age group. The results indicate an apparent difference between the husband's side and the wife's side in providing funding for housing at marriage in that a large portion of the funding is provided by the husband's side. Among various funding sources, a cash gift from the couple's parents appears to fund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cost for housing and marriage. Results show that a cash gift from the couple's parents funds a larger portion of housing expenses for younger generations, a phenomenon that becomes more severe and apparent the younger the couple is.

▲주요어(Key Words) : 세대간 자산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결혼 비용(cost of marriage), 주택비용(housing cost)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

며 IMF기간을 제외하고는 가격절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비용은 소득대비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의 경우 고정적인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주택구입은 기성세대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Hirayama & Ronald, 2007).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교신저자 : 이소영 (E-mail : soyo@cau.ac.kr)

사회현상과 함께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만혼 현상 등을 키우는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외국과 달리 임대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 유형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구입에 있어서도 모기지과 같은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혼시기에 부모의 현금지원이 자녀세대의 주거 마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출산율의 저하와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세대간 소득이전의 방향은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Blackburn & Cipriani, 2005).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과 주택금융제도의 미비는 자녀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모세대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세대간 소득 이전 양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결혼시기에 부모세대가 자녀의 주거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세대간의 이루어지는 자산이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세대 간 자산이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외국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세대간 자산이전의 양상은 교육비 지원, 현금지원,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 등이 일반적이다(Li & Yi, 2007; Hirayama & Ronald, 2007; Gale & Scholz, 1994). 또한 한국의 경우 자산이전이나 증여가 부모세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자녀의 결혼 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기경·박혜인, 2001). 특히 결혼시 소요되는 주택자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녀세대의 생활안정에 있어 주택비용의 지원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세대간 자산이전의 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별가구 세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인부모세대의 노후의 경제적 자립도와 부양의 문제, 자식세대의 생활안정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자녀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의 도움은 세대에 걸친 불평등을 지속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Henretta, 1984; Di & Yang, 2002, 재인용)로 세대 간 자산이전은 사회정의와 부의 재배분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다(Di & Yang, 2002). 주거자산 이전 행태의 변화는 주택 구입 결정과 주거이동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자녀 결혼 시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남녀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혼수문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신랑 측의 혼수는 신부예물과 주거지(주택), 신부 측의 혼수는 신랑예물과 살림살이로 구성됨에 따라 부모 특히 신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세대의 결혼 후 경제적 자립과 주택마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주희,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시 이루어지는 주거자금 마련 방법을 통해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이전(현금지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들도 사회적 변화와 함께 세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 주거자금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고 주거자금마련방법 중 특히 부모세대로부터 결혼자녀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이 얼마나 빈번하며 규모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 결혼시 주택 자금 마련 방법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고자한다. 특히 이러한 부모의 지원은 사회문화적 변화 및 경제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령그룹에 따라 결혼자금 중 부모의 현금지원이 주거마련자금에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비교하고 전체 혼수비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신혼 주거자금 마련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 2.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주거자산 이전양상이나 경험, 의식이 세대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집단을 20세 이상-39세 미만 (1970년~1989년 출생자), 40세 이상-59세 미만 (1950년~1969년 출생자), 60세 이상 (1949년 이전 출생자)으로 나누었다. 결혼시기에 이루어지는 세대간 자산이전 변화추이를 조사한 연구들은 결혼시기에 의하여 그룹을 나누기 보다는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그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Arcus & Nana, 2005; Hirayama & Ronald, 2007).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그룹의 구분과 이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연령그룹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임의 표집하였다. 총 7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한 70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혼주거자금마련과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를 한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였다. 신혼 주거자금 마련과 결혼비용에 관한 설문지를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주거자금 마련 재원은 Hirayama와 Ronald (2007)의 항목을 참조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결혼할 당시의 주택유형과 소유형태, 거주기간, 규모, 이사횟수, 신혼시 주택소유유형과 가격, 주택마련 비용방법, 혼수용품과 혼수 비용, 현주택상황 및 현주택 비용 마련 방법, 사회인구학적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분석은 SPSS 14를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chi^2$ -test t-test, Anova test를 실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세대간 자산이전 유형과 현금지원

결혼시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 지원은 세대간 자산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세입자와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련의 연구들(Helderman & Mulder, 2007; Di & Yang, 2002; Di, 2005)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며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나 이들의 연구가 인종이나 지역, 성별, 그리고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Thoms, 1995).

서구사회와 매우 다른 점은 자산이전이나 증여가 부모세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지며 이중 많은 경우 자녀의 분가나 결혼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기경 · 박해인, 2001).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로 지원할 수 있는 자녀수의 감소, 부모세대의 부동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노후 경제적 자립도 증가 및 자산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신혼 초기 주택자금 부담 증가 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신혼시 자산이전예전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혼시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이 신혼주거마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2. 신혼기의 주거자금과 관련된 선행 연구

신혼기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매우 높아 신혼기의 주택자금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경제력보조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 53.2%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 조은정, 1992). 신혼기이후에도 주거이동을 위한 주택자금마련문제는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김순미 · 광인숙, 1997). 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혼 초기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조달에서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지원이 주택마련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수하다.

결혼비용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에 조사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결혼비용이 2.1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결혼시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마련비용으로, 2007년 결혼한 전국 327쌍의 부부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지출한 결혼 비용은 1억 7,245만원으로 이 중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쓰인 비용은 평균 1억 2,26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70%정도를 집을 마련하는 비용이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결혼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혜영, 2007). 주택지불 능력은 흔히 소득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신혼기 부부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데 신혼기 부부의 개인 소득외에 부모세대로부터의 주거자산이전이나 자산이전에 의해 매우 좌우될 수 있으며 주택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모세대로부터 주거자산이전은 자녀세대의 주거마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주거비용의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신혼기 주거자금 마련비용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결혼비용이 주거자금 마련비용보다 1-2배 높은 경우 30.7%, 2배 이상인 경우도 16.6%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의 과시적 소비양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에 비하여 과거의 주거비용이 소득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 3. 주택자금 마련에 있어 남녀의 역할

국내의 경우 결혼시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남녀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 이는 결혼시 부모의 자산이전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자녀들 간에 균등한 분배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이대로 행하여지고 있다(Twig & Grand, 1998).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에 주택의 마련은 남자들의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택의 최초의 소유권은 이렇게 남자에게 유리하게 시작된다. 한 조사연구에서도 결혼할 때 집을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주부의 66%, 남편의 경우 69%, 미혼의 딸은 41%로 나타나 아직까지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결혼 시 남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이경희, 1996). 실제로 결혼 시에 여성들도 많은 혼수비용이 들지만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예물이나 내구성 소비재를 위한 것으로 재산의 형성, 특히 주택의 소유권으로부터는 소외된다. 국내의 경우 1991년 가족법에 따라 자녀들간에 균등한 분배가 법으로 명시되었지만 결혼시 이루어지는 현금지원은 남자가 주택을 마련한다는 의식에 따라 남자를 통하여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녀간의 주택마련 자금방법의 차이와 세대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조선일보 2002.2.22일

### III. 조사결과

####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41.5%, 여성이 58.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가 26.3%, 60대가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18.5%, 50대가 16%를 나타내고 있다. 대졸이 전체의 49.4%이며 고졸은 29%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응답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16.3%, 사무직 15.1%, 자영업이 15.1%로 나타났

으며 무직응답자는 전체의 7.3%였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가 전체의 64.8%이며 부부 또는 독신인 경우가 21.2%였으며 조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47.1%, 경기지역이 52.9%를 나타내고 있다.

#### 2. 결혼시기 결혼 비용 및 주거자금 마련 실태

조사 응답자들의 결혼 시 주택마련 비용의 부담을 남편 측과 부인 측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남편들의 경우 주택마련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현금 지원 액수는 자신들의 저축에 의한 비용마련 액수보다 큰 것으

<표 1> 조사대상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 분	항 목	빈 도	%
성 별	남	285	41.5
	여	402	58.5
연 령	20대	44	6.40
	30대	181	26.3
	40대	127	18.5
	50대	110	16.0
	60대	181	26.3
	70세이상	45	6.5
학 령	초등이하	27	3.9
	중졸	50	7.2
	고졸	203	29.0
	대졸	342	49.9
	대학원졸	77	11.0
직 업	전문직	114	16.3
	사무직	106	15.1
	판매서비스직	34	4.9
	생산직	16	2.3
	자영업	106	15.1
	주부	236	33.8
	학생	5	.7
	임시직	28	4.0
	무직	51	7.3
	기타	2	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43
101-200만원		83	11.9
201-300만원		145	20.7
301-400만원		110	15.7
401-600만원		152	21.7
601-800만원		75	10.7
801만원 이상		91	13.0
가족 구성	부부 또는 독신	148	21.2
	부부+자녀	453	64.8
	조부모+부부+자녀	67	9.6
	기타	31	4.4
현거주시	서울	329	47.10
	경기	369	52.90

<표 2> 남편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시 주택마련 비용 분포

n=700, 단위: 만원

항 목	남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부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본인 저축	1459.80	(3995.98)	581.46	(4521.40)
이전 주택 임차/매각	133.05	(1159.59)	10.97	(211.38)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703.40	(5973.34)	153.49	(848.82)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241.86	(1638.06)	19.88	(229.40)
회사로부터 대여	52.01	(379.07)	3.88	(79.03)
금융권 대여	407.74	(1718.48)	54.09	(594.09)
주택 외 기타자산 매각	4.81	(85.53)	0.21	(5.67)
주택 증여/상속	403.20	(6003.88)	18.59	(491.70)
기타	124.78	(2358.28)	0.17	(3.80)

<표 3> 20~30대 세대 남편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시 주택마련 비용 분포

n=226, 단위: 만원

항 목	남편측부담			부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		평균금액 (표준편차)	%	
본인 저축***	2643.8	(5313.6)	29.9%	837.6	(3751.4)	60.5%
이전주택임차/매각	160.0	(1198.5)	1.8%	22.2	(333.3)	1.6%
부모님으로부터현금***	3456.5	(8174.1)	39.0%	294.0	(1225.4)	21.2%
부모친지로부터대여**	380.4	(1643.2)	4.3%	56.9	(399.6)	4.1%
회사로부터대여	77.8	(499.5)	0.9%	11.6	(139.0)	0.8%
금융권대여***	881.3	(2664.5)	6.8%	105.1	(780.1)	7.6%
주택외 기타자산 매각	0.0	(0.0)	0.0%	0.0	(0.0)	0.0%
주택 증여/상속	951.1	(10326.5)	10.7%	57.8	(866.7)	4.2%
기타	305.8	(4033.0)	3.5%	0.0	0.0	0.0%

\*\*p<.01, \*\*\*p<.001

로 나타났으며 주택자금 마련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여, 그리고 주택의 증여나 상속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부인 측의 전체부담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부인 측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남편 측의 부모지원과 비교했을 때 평균금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인의 경우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도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경우,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에 있어서 남편측의 평균금액이 부인측의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남편측에서 비용조달 방법을 볼 때 가장 큰 부분은 부모세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으로 전체 금액의 39.0%에 해당하며 본인의 저축이 전체 주택금액의 2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측의 경우, 본인의 저축금액이 전체금액의 60.5%였으며 부모의 현금지원이 21.2%로 나타나 남편측 부모가 지원하는 현금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조달되는 금액과 본인저축에 의한 금액에서 남편측과 부인측의 차이는 매우 큰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택금액의 조달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증여나 상속을 이용한 경우, 남편측의 경우 전체금액의 10.2%에 해당하나 부인측의 경우 전체금액의 4.2%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 이는 주택증여나 상속의 경우가 빈번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50대의 남자의 경우, 결혼할 당시 주거비용마련을 위해서 본인들의 저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주거자금 마련 비용의 34.5%,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이 36.6%를 차지하여 부모세대로부터의 현금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lt;표 4&gt; 40~50대 세대 남편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시 주택마련 비용 분포 n=246, 단위: 만원

항 목	남편측부담			부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평균금액 (표준편차)		
본인 저축	1319.8	(3649.3)	34.5%	837.7	(6702.4)	78.5%
이전주택임차/매각*	227.7	(1578.5)	6.0%	10.8	(159.6)	1.0%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400.0	(5712.4)	36.6%	159.2	(798.4)	14.9%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252.5	(1874.0)	6.6%	2.0	(31.9)	0.2%
회사로부터대여**	73.7	(420.6)	1.9%	0.4	(6.4)	0.0%
금융권대여**	252.7	(999.2)	6.6%	57.3	(666.4)	5.4%
주택 외 기타자산 매각	12.2	(142.3)	0.3%	0.0	0.0	0.0%
주택 증여/상속	208.5	(2081.4)	5.5%	0.0	0.0	0.0%
기타	72.8	(962.6)	1.9%	0.5	(6.4)	0.0%

\*p&lt;.05, \*\*p&lt;.01

&lt;표 5&gt; 60대 이상 세대 남편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시 주택마련 비용 분포 n=228, 단위: 만원

항 목	남편 측 부담			부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	평균금액(표준편차)		%
본인 저축**	422.5	(2101.0)	43.8%	52.2	(268.2)	80.4%
이전주택임차/매각	4.3	(33.8)	0.4%	0.1	(1.3)	0.1%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257.6	(1832.3)	26.7%	8.7	(71.2)	13.5%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93.7	(1324.7)	9.7%	2.6	(33.7)	4.0%
회사로부터 대여	3.1	(34.4)	0.3%	0.1	(1.0)	0.1%
금융권대여*	107.6	(811.6)	11.2%	0.3	(3.4)	0.4%
주택외 기타자산 매각	1.6	(23.2)	0.2%	0.7	(9.9)	1.0%
주택 증여/상속	72.6	698.9	7.5%	0.0	0.0	0.0%
기타	2.3	(23.9)	0.2%	0.3	(0.4)	0.4%

\*p&lt;.05, \*\*p&lt;.01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20~30대에 비하여 부모비중이 다소 적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알 수 있으며 남녀간에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한다. 40-50대의 여성의 경우, 부모의 지원정도는 전체의 14.9%에 해당하지만 본인저축은 78.5%에 해당하여 20~30대 세대보다 전체 주거자금 대비 보다 많은 금액을 본인저축을 통해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살펴보면 남편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원은 전체 조달금액 중 26.7%이며 본인저축금액이 주택마련금액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차이와 본인저축부분 금융권 대여 부분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인측의

부담액은 본인저축이 전체금액의 80.4%에 해당하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받은 금액은 주택비용의 13.5%인 것을 알 수 있다.

### 3. 결혼시 주거소유유형과 부모 지원 범위

주거자산을 통한 총 자산의 축적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이나 이자소득보다도 항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sup>2)</sup>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근로소득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산소득의 편중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언론 조사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된 바 있다(MBC 여론조사, 2006년 1월 17-18일). 실제로 2005년

<표 6> 주택소유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부모지원액 차이 비교

연령	소유유형	n	부모 지원액	표준 편차	차이 검증
20대~30대	자가소유	60	6634.167	13172.28	F=3.903 p=.010
	전세	121	3244.634	5690.80	
	월세	19	984.210	2748.18	
	부모 친지주택에 함께 거주	23	1500.000	4974.93	
40대~50대	자가소유	57	3536.140	9205.58	F=3.668 p=.013
	전세	119	899.075	1900.456	
	월세	29	14.482	51.5188	
	부모 친지주택에 함께 거주	36	2345.000	8759.216	
60세 이상	자가소유	69	756.8551	3283.265	F=2.357 p=.073
	전세	78	58.4359	242.5616	
	월세	33	10.30303	38.76893	
	부모 친지주택에 함께 거주	45	80.28889	258.7367	

\*소유유형 중 기타 제외

<표 7> 주택 소유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신혼주택 자금 차이 비교

연령	소유유형	n	평균값	표준편차	차이검증
20대~30대	자가소유	60	15842.5	14021.9	F=6.015 p=.001
	전세	121	8155.8	8440.3	
	월세	19	2015.8	2812.37	
	부모 친지 주택에 함께 거주	23	14282.6	36357.1	
40대~50대	자가소유	57	11057.7	17639.8	F=10.527 p=.000
	전세	119	2827.8	4116.4	
	월세	29	1291.5	2721.8	
	부모 친지 주택에 함께 거주	36	4690.8	9659.2	
60세 이상	자가소유	69	2125.8	7820.2	F=1.895 p=.131
	전세	78	574.6	1180.7	
	월세	33	463.8	1175.5	
	부모 친지 주택에 함께 거주	45	711.2	1654.9	

\*소유유형 중 기타 제외

주거자산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대간 자산이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결혼시 주거소유유형과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부모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표 6>참조), 주거소유유형에 따라 부모지원 금액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전세나 월세에 비하여 자가소유의 경우가 부모지원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젊은 세대로 올수록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시 주택 소유 유형에 따른 신혼주택자금을 비교하였을 때(<표 7> 참조) 자가소유자의 주택마련 자금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부모세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주거소유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다시 주택자금 평균값에서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거자산을 통한 세대간의 이전(현금지원을 통한)이 세대간 소득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4. 결혼시 혼수 및 결혼 비용과 주거비용의 비교

조사 응답자들의 주택을 제외한 결혼 비용 분담을 남편 측과 부인 측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편 모두 본인 저축과 부모세대로부터의 현금지원이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방법으로 나타났고 특히 20, 30대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5%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43%가 무주택가구이며,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3%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전체 가구의 40.4%는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아 토지와 주택소유가 극심한 불균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김성달, 2006). 이는 주택 및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자산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t;표 8&gt; 20~30대 세대의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혼수비용 재원 분포 n=225, 단위: 만원

항 목	남편측부담		부인 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	평균금액 (표준편차)	%
본인저축***	687.6 (1355.3)	46.1%	1173.3 (1428.0)	48.4%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635.8 (1617.7)	42.6%	1187.8 (2299.1)	49.0%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22.2 (163.2)	1.5%	34.7 (206.7)	1.4%
회사로부터 대여	4.4 (66.7)	0.3%	5.8 (69.5)	0.2%
금융권으로부터 대여***	18.7 (141.1)	1.3%	0.0 0.0	0.0%
주택외 기타자산 매각	4.4 (66.7)	0.3%	0.0 0.0	0.0%
기타	117.8 (1669.2)	7.9%	20.9 (242.7)	0.9%

-주택을 제외한 혼수품(가전, 가구, 침구, 주방용품, 예단, 예물 등)마련 및 결혼식 준비에 들었던 총비용  
-남편측과 부인측의 평균비용 차이 검증 \*\*p<.01, \*\*\*p<.001

&lt;표 9&gt; 20~30대 세대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혼수 및 결혼식 비용재원에 따른 분포차이

항 목	여 부	남편측		부인측		x <sup>2</sup> (p)
		빈도	%	빈도	%	
본인저축	예	89	39.6%	151	67.1%	34.321 (.000)
	아니오	136	60.5%	74	32.9%	
부모로부터 현금	예	67	29.8%	95	42.2%	7.562 (.042)
	아니오	158	70.2%	130	57.8%	

&lt;표 10&gt; 40~50대 세대의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혼수비용 재원분포 n=238, 단위: 만원

항 목	남편측 부담		부인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	평균금액 (표준편차)	%
본인저축	524.4 (2174.7)	45.0%	407.2 (960.1)	40.8%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587.3 (1583.5)	50.4%	572.4 (1205.7)	57.4%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25.3 (188.3)	2.2%	5.8 (66.2)	0.6%
회사로부터 대여	0.2 (3.2)	0.0%	8.1 (127.5)	0.8%
금융권으로부터 대여	27.2 (325.6)	2.3%	0.8 (12.8)	0.1%
주택외 기타자산매각	0.0 0.0	0.0%	0.0 0.0	0.0%
기타	1.2 (19.1)	0.1%	3.3 (34.8)	0.3%

서 부인측 부담이 남편 측 부담액을 상회하고 있었다.

남편들의 경우 주택마련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하여 혼수비용은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세대로 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주택마련 비용에 비하여 혼수비용의 부담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대 가구의 주택외 혼수 및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마련 방법의 빈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7.1%가 본인 저축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42.2%였다(<표 9> 참조).

40대와 50대의 경우(<표 10> 참조), 결혼 혼수 비용에 있어서 남편측 부담과 부인측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표 11> 40~50대 세대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혼수 및 결혼식 비용재원에 따른 분포차이

항 목	여 부	남편측		부인측		x <sup>2</sup> (p)
		빈도	%	빈도	%	
본인저축	예	105	42.7%	131	53.3%	5.505 (.012)
	아니오	141	57.3%	115	46.7%	
부모로부터 현금	예	78	31.7%	97	39.4%	3.202 (.090)
	아니오	168	68.3%	149	60.6%	

<표 12> 60대 이상 세대의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혼수비용 재원 분포 n=222, 단위: 만원

항 목	남편측 부담			부인측 부담		
	평균금액 (표준편차)	%		평균금액 (표준편차)	%	
본인저축	231.8 (1499.7)	46.7%		116.9 (696.9)	59.0%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65.6 (1348.3)	33.4%		77.2 (299.9)	39.0%	
부모친지로부터 대여	95.4 (1326.1)	19.2%		3.9 (36.3)	1.9%	
회사로부터 대여	0.0 (0.0)	0.0%		0.0 (0.0)	0.0%	
금융권으로부터 대여	2.6 (33.7)	0.5%		0.0 (0.0)	0.0%	
주택외 기타자산 매각	0.2 (3.3)	0.0%		0.0 (0.0)	0.0%	
기타	0.4 (4.9)	0.1%		0.1 (0.8)	0.0%	

<표 13> 60대 이상 세대 남편측과 부인측에서 부담하는 혼수 및 결혼식 비용재원에 따른 분포차이

항 목	여부	남편측		부인측		x <sup>2</sup> (p)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본인저축	예	106	46.5%	97	42.5%	0.719 (0.451)
	아니오	122	53.5%	131	57.5%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	76	33.5%	80	35.2%	0.156 (0.767)
	아니오	151	66.5%	147	64.8%	

볼 수 있다.

재원별로 남편측과 부인측의 부담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이 남편의 경우 전체 금액의 50.4%이며 부인의 경우 57.4%로 나타났다. 20~30대에 비하여 주택자금 마련외에 결혼비용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부가 함께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혼수 및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마련 방법의 빈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2.7%가 본인 저축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31.7%로 20~30에 비하여 부모세대로부터의 지원이나 본인저축금액을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표 11> 참조). 여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53.3%가 본인 저축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39.4%였다.

60세 이상의 경우, 결혼 혼수 비용에 있어서 남편측 부담과 부인측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남편 부담 평균금액이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본인저축으로 부담한 비용이 남편의 경우, 전체금액의 46.7%이며 부인의 경우 59.0%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는 다른 연령그룹과 비교하여 볼 때, 결혼 비용 중 본인저축과 부모에게 받는 현금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권으로 대여가 미비하여 부모로부터의 지원금액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 세대의 경우, 주택의 혼수 및 결혼에 소용되는 비용마련 방법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본인들의 저축을 이용한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시기에 주택마련을

<표 14> 결혼시 연령대별 주택마련 비용과 혼수 및 결혼식 비용 분포

구 분	결혼주택마련비용		혼수 및 결혼식비용		총비용
	평균값 (표준편차)	%	평균값 (표준편차)	%	%
20대~30대	남편	8856.7 (14210.3)	86.5%	1490.9 (2707.8)	38%
	부인	1385.1 (4187.5)	13.5%	2422.4 (2499.6)	62%
	총비용	10241.8 (15475.7)	100	3913.3 ( 3882.3)	100%
		72%	28%	100%	
40대~50대	남편	3859.9 (1165.744)	78%	1165.744 (2800.3 )	54%
	부인	1067.8 97283.0	22%	997.6 (1574.4 )	46%
	총비용	4919.2 (10387.4)	100%	2163.4 (3573.0 )	100%
		69%	31%	100%	
60세 이상	남편	985.4 (4463.9 )	94%	498.2 (2770.0)	71%
	부인	64.7 (277.7)	6%	198.1 (751.9)	28%
	총비용	1050.1 (4475.6)	100%	697.1 (3356.4 )	100%
		60%	40%	100%	

위한 비용 중 상당부분을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을 통해 조달되었다. 특히 세대간 자산이전 측면에서 남편 측 부모로부터 현금을 통한 자산이전이 빈번히 행하여져 왔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주택가격의 상승, 경제적 발전,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이러한 결혼시 주택구입을 통해 남자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가구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의 규모가, 결혼시 주택구입을 위한 총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산이전은 부모의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모 생존시에 행해지며 특히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남자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젊은 세대의 경우, 결혼시 필요한 비용 중 주택마련 비용이 혼수 및 결혼식 비용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마련 비용과 혼수비용에 따른 남녀의 역할도 더욱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결혼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주택과 혼수 및 결혼식 비용에서 모두 남자의 비중이 높는데 비하여 젊은 세대로 올수록 남녀가 각각 주택마련과 혼수 및 결혼식 비용 마련에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혼시 이루어지는 부모로부터의 현금 지원이, 남자의 경우 그 부담에 매우 커진데 기인한 원인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이 세대간 지속될 수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주거 안정에 부모세대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결 론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결혼 시 주택마련 비용의 부담을 남편 측과 부인 측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부인 측의 전체부담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부인 측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남편 측의 부모지원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인의 경우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의 수혜도 매우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시기 주거소유 형태에 따라서 부모의 지원액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주거자금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이 세대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결혼시 부모의 현금지원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후 상속보다 사전 증여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그룹으로 올수록 남자 자녀를 통하여 현금지원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는 장자상속에 대한 이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주택임대제도에 따른 독특한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시 지불해야하는 주택의 가격은 매우 높고 또한 서구와는 달리 현금지불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전세제도도 목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결혼 시 최초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다. 결혼시 필요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만혼현상, 미혼화 현상의 확산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그것으로 인한 비용과 부담이 더 크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성인이 과도한 주거비 마련 등의 경제적 문제와 부모세대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비자발적 독신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재의 주택정책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제공 및 주택 자금 마련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결혼시 자녀의 주택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은 20~30대의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결혼시 필요한 자녀세대의 주거자금을 위하여 부모세대의 현금지원이 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이는 부모세대의 노후시기에 경제적인 자립도를 저하시키고 노후생활의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화와 인구고령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등은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관습을 허물고 세대간 자산이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한국연구개발원, 2006),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현금지원을 하였으나 자녀세대는 이전세대처럼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현금지원이 변화하는 양상을 크게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을 지어 분석하였으며 각 연령그룹 안에서 개인별 결혼시기가 상이한 점이나 부모세대의 연령, 부모세대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이 등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주거자금 재원별 금액 추정 등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통계자료 등에서 60대 이상의 결혼시

주거자금을 반영할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우며 설문지에 기초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이밖에 분석의 대상을 구분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비교조사하기에 실증적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분석하는데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큰 시기로 나누어서 결혼시 이루어지는 부모로부터 현금지원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시기에 상관없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배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자금의 비중이 젊은세대로 올수록 높아짐에 따라 부모세대에 대한 의존도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세대 간 자산이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부적인 배분 행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의식의 변화, 생애주기의 변화, 남녀 역할의 변화 등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제반 사회변화와 의식변화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출생연도, 결혼시기,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비교대상의 선정과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과 이후 자녀세대로부터의 부모 부양 등 상호적인 접근에서 세대간 자산이전 변화추이가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결혼시 주거 외에 현재 거주하는 주거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기경·박혜인(2001). 도시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 김성달(2006). 판교 신도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월간 경실련 3월호, 경제정의실천연합.
- 김순미·곽인숙(1997). 도시가계의 주거이동유형별 주택자금 규모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95-109.
- 김주희(2005). 해방 후 혼수문화의 변천에 대한 사례연구: 부거제 의식과 가족주의의 지속, 가족과 문화, 17(2), 127-154.
- 김혜영(2007). 1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41 -1057.
- 이경희(1996).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 이기춘·조은정 (1992). 도시 신혼기 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 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95-113.
- 장혜경 외(2007).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화 소득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세부과제 보고서.

- Di, Z. X. & Yang, Y. (2002).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and its impact on housing*,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Harvard University.
- Li, S. & Yi, Z. (2007). Financing home purchase in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Guangshou, *Housing Studies*, 22 (3), 409-425.
- Gale, E. G. & Scholz, J. K. (199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145-160.
- Henretta, J. (1984). Parental status and child's home owner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1), 131-140.
- Di, Z. (2005). Does housing wealth contribute to or temper the widening wealth gap in America?, *Housing Policy Debate*, 16(2), 281-296.
- Helderman, A., & Mulder, C.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meownership: The Roles of Gifts and Continuities in Housing Market Characteristics. *Urban Studies*, 44(2), 231-247.
- Blackburn, K., & Cipriani, G. (2005).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8. 191-214.
- Hirayama, Y., & Ronald, R. (2007). Baby boomers, baby busters and the lost generation: generational fractures in Japan's Homeowner society, In *Proceedings of APNHR 2007 conference*, 17-38.
- Thorns, D. (1995). Housing wealth and inheritance, The New Zealand experience, in R. Forrest and A. Murie (eds.). *Housing and Family Wealth: Comparative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Twigg, J. & Grand, A. (1998). Contrasting legal conceptions of family obligation and financial reciprocity in the support of older people: France and England. *Ageing and Society*, 18, 131-146.

접수 일 : 2011년 06월 17일

심사 일 : 2011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17일